

미첼 가족 기도 서신 2020년 6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10:42

기도가 많이 필요한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이 내린 이후부터 손과 발로 움직여 섬기는 분야는 거의 모두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4월 중순 제 몸에 갑자기 특이 현상이 생겨서 응급차에 실려 가서 각종 검사를 받고 바로 퇴원을 했지만 거의 한 달 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 드리며 영적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1. Bridgwater Baptist Church와 사역: 미첼 선교사가 영상으로 설교 사역을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풀리는 시점으로 International café를 시작하는 안건을 놓고 목사님과 의논을 드렸는데 교회적으로 실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International café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 주일 한번 모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분야를 놓고 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계획이 주님으로 부터 인증 된 사역인가를 확인하려는 단계이며 이를 위해 관련된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이 전 세계에서 올 것임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도 Bridgwater의 소도시는 그 추세에 대비해 구조와 사회적으로 품으려는 노력들이 증가되는 중입니다.

2. 동네에서 시작하려던 café 역시, 거의 시작 단계에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제가 담당해야 할 시간 중에 젊은 엄마들을 만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 그 분들의 마음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 중입니다. 지금 이곳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영국 사람들이 아닌 변화된 상황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예상하며 준비 중입니다. 기도 코너/상담 그리고 안전한 만남의 장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카페에서 제공할 여러 종류, 치즈 케익, 비스킷, 머핀들 중심으로 거의 모든 레시피를 찾아 만들었고 이제 시작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차/커피 마시는 것을 관계 형성의 첫 걸음으로 보니 저도 베이킹을 사역의 tool로 정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 제자 훈련을 zoom으로 시작하는 것을 시도해 왔는데 아직도 미루어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도 모임으로 몇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암 치료로 고생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들 모임을 함께 진행하던 R 부인도 '하나님께 돌아 온다' 고 합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오겠다고 합니다.

4. 무엇보다도 건강의 이상으로 인해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진실하고 싶은 간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올려 드리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비 매달 보내 주시는데 저희가 별로 하는 일이 없이 봉쇄령에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로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배운 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흡함을 느끼면서 주님의 뒤를 허겁지겁 따라 갑니다.

깊이 감사 드립니다.

원향희울림

2020년 6월23일